

후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2020년 8월 후원미사는 17일에 봉헌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위해 후원회원과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이주사목위원회 사제, 수도자들은 후원회원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문의 / 02.924.9970 ~1

* 새로운 후원 가족을 환영합니다!

이이내 카타리나, 이봉주 루피나님께서 후원 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6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14,914,190

지출내역

항 목		지 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어린이집	5,85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보수공사비 등
	가정폭력 이주여성 시설	9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행사비 등
	마고네지역아동센터	5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집	1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등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등
	중국공동체	100,000	의료비 등
	상호문화센터	7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10,175,000		
지원비	노동사목회관	2,400,000	시설유지비, 수도광열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2,288,763	운영비(행사비, 우편비 등) 지출 및 예치
지출 총액			14,863,763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www.seoulmigrant.net

2020. 07 / 제49호

펴낸날 2020. 07. 20.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이광희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신부님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거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마태오 복음에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10, 32-3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하는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하느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느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톨릭신자로서 예수님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세주이신 주님을 거부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생각과 말씀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행동을 따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고의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비신자처럼 될 수 있습니다. 본인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웃을 나쁘게 말할 때마다 예수님을 완전히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창세 1,27). 나쁜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하느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거절할 때, 온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마태 10, 37-39).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은 결코 따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하느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 반대되는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라고 하지만, 때로는 부모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부모와 다투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느님에게 순결하고 순수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난잡한 행위를 저지르고 심지어는 교회에 누를 끼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상을 하지 마라'고 하지만 소셜 미디어 등에 가짜 뉴스 등을 퍼뜨려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을 '위선자', "히포크리트(hypocrite)"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본인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일상생활에서 그분을 거부하거나 부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을 파괴함으로써 그분을 거부하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성심을 다하여 그분을 받아들이도록 은총 주시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하느님과 이웃을, 특히 이주민들과 난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공동체 소식

베트남공동체 소식*

베트남 공동체의 공소가 신자 수에 비해서 협소하여 불편하고 위험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순경 이주사목위원회가 있는 노동사목화관의 3층과 지하 강당으로 이전하여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그 동안 함께 미사 드렸던 베트남 이주민들이 다 모일 수는 없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한마음으로 기도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위원회 소식*

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의 이사회 및 임시총회가 지난 7월 3일에 있었습니다. 안건으로는 2020년 예산 추경의 건, 인도네시아 공동체를 법인 산하 공동체로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인도네시아 공동체를 이주사목위원회의 새로운 국가별 공동체로 맞이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다양한 국가별 공동체가 함께 활동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이주민들이 우리의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어린이집 소식*



〈서순복 어린이집 교사 10년 장기근속표창〉



〈어린이집 미사〉

도움주신 분 *

서울국제친선협회에서 아동신발과 여성화 116켤레를 기증해주셨고 성북경찰서에서는 방역마스크 1,000장과 손 소독제 1박스 등 방역물품을 전달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후원회원들의 정성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주시는 따뜻한 사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소식*

지난 6월 17일(수)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 명동가톨릭회관에서 '이주민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는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이주민들은 일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인종차별을 경험해 왔고,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상당수 이주노동자들이 감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서 소외되고 마스크 구입조차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할 때이며, 인종차별과 혐오를 금지하는 법률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명서]

이주민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은 부처님과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들이다. 그리고 부처님도 예수님도 모두 이주민이었다. 오늘날의 불교인과 원불교인들은 "존재하는 모두가 부처다." 불경, 원불교경전이라는 말씀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사람을 구박하거나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 붙여 살지 않았느냐?"(공동번역 출애 22, 20)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사건으로 인해 인종차별의 심각성이 드러나며 큰 충격을 주었다.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외침은 한 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곳에서 울려 퍼져야 한다. 또한 인종차별이 UN이 규정한 반인류적 범죄임을 모든 국가가 인식하고 강력한 법적 규범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1979년 UN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UN으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고 있다. 인종차별을 남의 나라 문제로 보는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법률 제정을 통해 UN의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가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초기 과정에서 상당수 이주노동자들이 질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자국 언어로 받지 못했으며,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근무시간에 일터에서 나오지 못해 약국 방문을 통한 마스크 구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더욱이 질병에 대한 공포가 특정 국가와 이주민에 대한 혐오로 변하여 인터넷과 SNS를 통해 이들에 대한 공격이 나타나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난민, 결혼이주민, 영주권자 등 일부 이주민을 건강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하여 포함시키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체류자격을 가진 모든 이주민을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확대된 사회적 기준을 보이고 있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이주민들도 예외 없이 내국인과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으나, 허술한 규제와 차별적인 정책으로 인해 이주민들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지 않는지 정부 당국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의 발생 이전부터 이미 이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인종차별을 경험해왔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멸시와 모욕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을 혐오하는 각종 단체와 커뮤니티들은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을 퍼뜨리고 있다.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인종차별과 혐오를 금지하는 법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지난 해 1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만장일치의 심판 결정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차별·혐오의 금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제 인종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과제는 21대 국회가 지고 있다. 국회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헌법과 UN인권협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만이 이 땅의 230만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길이며, 동시에 인종차별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첫걸음이라 하겠다.

우리 〈4대종단이주인권협의회〉는 종교인의 양심과 신앙을 따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하여 끝까지 협력하며 목소리를 낼 것이며, 모든 인간이 가진 고귀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더욱 많은 이들과 손을 잡고 나아갈 것이다.

2020년 6월 17일

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 원불교 인권위원회